

〈座談會〉

# 미국수도협회 연차총회에 다녀와서

- 日時時 : 1986.8.23. 下午 4時
- 場 所 : 協會 事務局
- 參 席 者
  - 金 淳 用 (韓美綜合機械(株) 會長)
  - 趙 光 玉 (瑞光工作(株) 專務理事)
  - 金 元 澤 (富德實業(株) 代表理事)
- 司 會
  - 朴 仲 鉉 (서울大學校 教授·本會 副會長)

## 미국수도협회 연차총회

○司會 더운 날씨에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6월22일 부터 26일까지 5일간 미국 콜로

라도주 덴버시에서 개최된 미국수도협회 86년도  
년차 회의에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분  
을 모시고 회의 참석 보고를 겸한 좌담회를 마  
련했습니다.

먼저 회의 참석 동기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金淳用 모든 분야가 첨단적으로 발전하고 있  
는 현재 국내 수도분야가 낙후되고 있는 감이있  
어 비단 이번 회의만 아니라 수도관계 국제회의  
가 있을 때마다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첨단 기술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  
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趙光玉 수도기기를 제작하는 입장에서 우리  
가 제작하는 수준이 미국 수도기자재 수준과 비



좌담회 광경 좌로부터 김원택 사장, 조광욱 전무, 김순용 회장, 박중현 교수(사회)

교해서 어느 정도나 또 기술을 배울 것이 있다면 무엇을 배울 것이 있고 우리보다 못한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또 전시회 규모 파악과 국제적으로 수도에 종사하는 분들과 대화를 가질 수 있나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 참석했습니다.

○金元澤 우리 상수도 기자재가 외국에 뒤지는 것을 실제 확인하고 특히 급수장치계통 부품을 외국 것을 불러고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미국수도의 전반적 규모를 직접보고 상당히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司會 회의 규모나 참석인원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金淳用 회의 규모는 대규모였습니다.

8,500여명의 참석자 모두가 전문가고, 또 권위자였습니다. 이들이 모여 큰 잔치로 승화시켜 연구와 배움, 정보교환을 하고 있었고 첨단기술을 이용한 장비 등을 보고 정말 감탄했습니다. 회의 진행 역시 너무나 합리적이었습니다.

○司會 미국 이외의 국가는 어떤 나라가 참석했습니까?

○金元澤 캐나다가 상당히 많이 왔고 유럽국가들과 일본은 설계용역회사 2개사가 플랜트를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司會 개발도상국에서는 어느 나라가 참석했습니까?

○趙光玉 인도네시아에서는 인원이 많이 왔고 인도는 전시를 많이 했어요. 증기계통을 전시



회의공식 만찬회 석상에서  
김순용 회장(우로 부터 세번째)

했습니다.

○司會 전시회를 보신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趙光玉 전시 부스가 400여개 되고 규모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상설전시장으로 1층 2층을 모두 쓰고 있었고 전체 3분지 2 정도가 벨브와 이형관이었습니다. 제품의 질은 우리가 따라가기에 먼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 거리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金元澤 규모도 컸지만 참가하는 사람이 많아요. 등록하는 것이 다릅니다. 회의 등록은 220불인데 전시회는 10불입니다. 각 전시장마다 자료 등이 준비가 잘되어 있고 회사마다 전시규모가 큰 것도 특징입니다.

○趙光玉 제품만 전시하는 것이 아니고 성능을 알 수 있도록 단면을 찢른 것, 작동시키는 것, 비디오 등과 전시를 위한 제품은 따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특색이었습니다.

○金元澤 관 등 큰것은 별로 전시가 안되어 있고 청동벨브, 수도꼭지 등 아주 세밀한 것이 많았습니다. 전시회에서 만난 사람이 중소기업체 사장이 많았습니다.

○司會 미국에서 전시회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적극적이다. 주로 자기가 개발한 것을 전시하더라는 말씀이지요.

논문발표를 분과별로 했을텐데 참석하신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金元澤 오늘 안 나오셨는데 일행중 배경석사장이 주로 참석했습니다. 논문집을 사려고 했다



회의장 앞에서 황환지 수원시 건설국장(좌)  
안동호 군산시 건설국장

니 안팔고 등록하는 사람에게만 배부합니다. 언어 때문에 역시 힘들더군요.

○趙光玉 세미나가 11개 분야에 86개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었는데 언어문제가 있어 듣기 힘들어 논문집을 입수하려고 했는데 등록자에게만 배부하더군요. 그래서 미국수도협회 간행물센터에 가보니 작년에 발표된 것은 책으로 나와있어요. 책이 나오면 구입하려고 합니다.

○司會 미국의 상수도시설을 두루보고 느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金淳用 우리가 갔던 푸트힐스 정수장에서는 착수정에서 침전지까지의 낙차를 10m를 이용해서 3,200kw의 소규모 수력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부국이면서도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자원을 절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감명받았습니다.

○金元澤 우리는 아직 물량단위에 치중해 있지만 미국은 질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전시회에도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된 물을 재차 처리해서 음료수로 만드는 파이로트 플랜트가 있었는데 그것을 보면 수질에 상당히 관심을 두고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덴버시수도국에서는 모든 시설이 완전히 자동화되어 한곳에서 모든 통제를 다하고 즉시 컴퓨터로 기록이 나오는 것을 보니 부러웠습니다.

○趙光玉 덴버시수도국에 갔을 때 상수도 사고 발생시 처리방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

았습니다. 예비라인으로 통수하고 24시간내 수리한다. 누수율은 6%정도라고 합니다. 또 현황판에 각 밸브마다 유량이 측정되는 것을 보니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따라가야 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슬러지처리는 수원지내 공지에 펌프로 벌판에 분무하는데 부지가 넓어서 1년동안 뿌려도 쌓이는지 안쌓이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金元澤 귀국하다가 일본에 들러 누수방지조사회에 가보았는데 상당히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각 도시마다 누수방지계를 설치하고 있는데 관청이 아닌 곳에서 누수방지에 대한 업무를 하는 곳이 있었으면 합니다.

○趙光玉 우리는 누수방지라면 물 세는 것을 막는 것으로 개념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누수탐지로 정의되어야지 누수방지와는 다릅니다. 어느 지역에서 누수가 어떻게 나는지 알아야지 터진 것만 고치는 체계를 바꾸고 예산도 투자해서 교육기관도 설치하고 기술도입도 해야 되겠습니다.

일본의 누수방지조사회는 자체에서 교육을 시켜서 수료자에게는 자격증을 주고 있습니다.

○司會 협회내에 누수방지문제를 담당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짓지요.

이번 회의 참석후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대표를 보낼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느낀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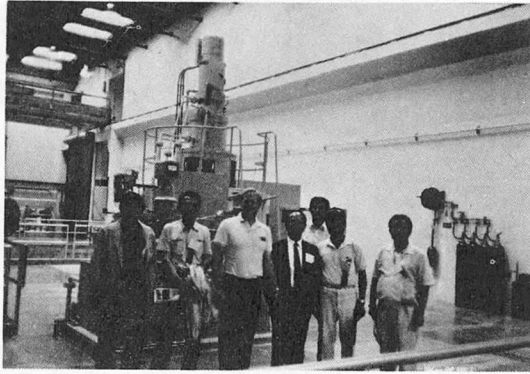
그리고 과거에는 한국이 미국의 시장이었는데 앞으로는 미국이 한국제품의 거대한 시장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도 함께 묶어서 얘기해 주시지요.

○金元澤 앞으로 우리나라 상수도 기자재가 미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 기준까지 제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는데 상수도관계는 수출해 본 경험이 없고 질을 찾지 못해서 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가능하다면 몇몇 업체가 합해서 전시장에 부스를 몇개 사서 한국관을 만들어 공동전시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논이 되었습니다.

○趙光玉 그리고 우리 협회가 외국협회와 교류도 활발히 해서 흐름도 파악하고 자료도 수집해



푸트힐스 정수장 앞에서(좌로 부터)  
김만영 회장, 황환지 국장, 김순용 회장,  
한사람 건너 김원택 사장, 안동호 국장



푸트힐스 정수장 펌프실에서

서 필요한 국내 업체에 나누어 주고 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새로 개발된 기술을 빨리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司會 인도 제품과 우리나라 제품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金元澤 우리것이 좋습니다. 인도에서 주물품이 전시되었는데 영성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제품도 미국 상품명으로 출품되어 있는 것이 있었읍니다. 소켓트하고 벨브 몸통입니다. 인도의 주물이 질은 떨어지나 가격은 상당히 싸 모양입니다.

○趙光玉 이번에 다녀와서 제품을 성실하게 더 잘 만들어야 하겠다. 오늘 만든 제품에 만족하지 말고 좀더 연구해서 질 좋은 제품을 만들고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경쟁에 이길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하겠다고 각오 했습니다.

○金淳用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제회의에는 자주 참석해야겠고 좋은 기술을 보고 모방도 할 수 있고 또 시장개척도 할 수 있으므로 1석2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의 준비나 진행을 보더라도 회의비용을 등 록비, 입장료 등을 받아 그 수입으로 행사를 치 루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읍니다.

그리고 회의에 참석하기 전에는 우리 상수도 기술이 낙후되어 있지 않는가 하고 평상시 생각했는데 미국에 가보니 물론 미국의 기술을 우리가 수용해서 사용할 기술이 더 많겠지만 우리 기술과 제품을 미국에 수출해야 하겠다는 것을 느꼈읍니다. 특히 미국은 국가도 크지만 수도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고 있는 국민이고 또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면에서 상당히 수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느꼈읍니다. 우리의 기술과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때가 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司會 오랫동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